

광남시론

위인백

(사)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헌을 문란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무혈로 막아낸 건, 불의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의 교훈에 따른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국민의 승리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쾌거다.

하지만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이 그렇고, 형벌 중 가장 무겁게 다스린 내란죄의 수괴를 석방해 주고, 뺏을 잘했다고 재판에서도 특별 예우로 대접하는 사법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지켜보면서 이제 법치주의이고 공정과 상식의 공권력이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누가 봐도 위법 부당했다. 민주주의를 정취한 위대한 국민이 막아내서 다행이지 그렇지 못했더라.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일상이 뒤바뀌고 역사를 후퇴시켰겠다 싶어 끔찍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법당국도 법을 집행할 때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지만,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부수립 이후 수십 년을 관행으로 집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자

행해 오던 형사재판 규정을 깨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외면한 채 구속 일수 산정을 느닷없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그도 중죄인인 내란수괴를 석방했다.

그동안 통용되던 법 절차가 왜 내란수괴에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지, 법정출석에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등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까지 구속 일수 시간 계산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라고 계속 날로 구속 일수를 계산하라 지시했으면서도 상식에 반한 극히 예외적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고 중죄인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있으니 정부수립 이후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피의자가 있었던가!

사법당국이 이러니 내란수괴도 덩달아 일발의 반성도 없이 법정에서까지 안하무인으로 후안무치한 게 아닌가! 전 국민이 지켜봤고 증거가 차고 넘친대도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고 소가 웃을 허언을 늘어놓고, 심지어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답장을 넣는 쇼를 했다고 우기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형평과 관행을 깬 판사의 결정으로 감옥에서 53일 만에 석방되면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혼들어 대는 철면피, 파면으로 관저에서 쫓겨나면서 엄지도 없이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막후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등 국정을 망쳐놓고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않고 운여게인 신당설까지 나오는 세태, 탄핵·파면당한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내란수괴를 언제까지 예우하고 용납할 것인가!

이제라도 사직당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다시는 국헌을 문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역사에 남달이 기록하고 내란수괴와 이에 동조한 자들에게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내란을 청산하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감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바야흐로 집권을 위한 대선정국에 들어섰다. 국민의 선택으로 오는 6월 3일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대권 후보는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명목으로도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도록 해야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설 것이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은 당장 듣기 답답한 말을 앞세우는 대통령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테이블 위에 과감히 꺼내놓고 경청부터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윤석열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 국론이 분열됐고, 갈등은 깊어지고 경제도 무너졌다. 세계질서마저 힘의 원리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우리의 후세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아가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야 한다.

대선 국외 투표, 24일까지 신고·신청하세요

외선거권자 수 대비 4.7% 정도 밖에 안되는 수이다.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제22대 국선 재외유권자 의식 조사에 의하면 재외투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투표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재외투표에 미참여한 500명 중 87.2%가 재외선거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많은 인력·예산 등을 투자하는 재외투표 제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깝고 국내에도 재외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되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서면·전자우편,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24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신청 할 수 있다. 대통령 권위선거는 별도로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없이 선거일전 30일인 5월 4일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0일인 5월 14일까지 재외투표소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고, 5월 20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를 거주지로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고 뉴욕으로 갔을 경우, 뉴욕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 내 투표절차는 국내의 사전투표와 비슷한 면이 많다.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로 본인확인,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 수령,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 투입이다.

재외투표소의 관리자는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투표지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며 이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하는 투표참관인 참관 아래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합·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관위로 재외투표지를 송부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이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투표함에 투입·보관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 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소중한 한 표, 신고·신청 늦추지 말고 지금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취재수첩

KIA 타이거즈, 상승세 이어가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KIA 타이거즈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주 kt 위즈·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연속 위닝시리즈를 달성한 것이다. 그 결과 11승 12패를 기록, 승패 마진을 -1로 줄이고 동시에 순위는 6위로 상승했다.

올 시즌 시작 전 '절대 1강'으로 꼽혔던 KIA는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다.

먼저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했던 전상현이 두자릿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흔들렸다. 여기에 이준영, 황동하, 광도규, 임기영 등이 모두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마무리 정혜영도 매 경기 안타를 내주며 불안한 모습이 었다.

민을 건 타선이었지만, 내야진 역시 부상으로 신음했다.

지난달 23일 김도영이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개막전이었던 전날 NC 다이노스와 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고 MRI 검사를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 이어서는 지난달 26일 박찬호가 무릎 염좌 소견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박찬호는 전날 키움과의 경기에서 2루 도루 과정 중 무릎 통증 호소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는

10일간의 휴식을 한 뒤 이달 5일 1군에 복귀했다. 그 대신 '2024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왼쪽 중아리에 미세 손상을 겪었던 그는 이달 1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으나 뒷날 손상을 악화시켜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각종 악재가 겹쳤던 KIA는 최근 불펜진이 안정감을 찾았고, 내야진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불펜진은 지난주 평균자책점은 2위(2.42)를 기록했고, 구원 투수들이 3승 6홀드를 챙겼다. 필승조 전상현은 5경기 연속 비자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최지민(13경기 1승 4홀드 평균자책점 1.64)과 조상우(13경기 2승 1패 6홀드 평균자책점 1.69)가 뒷문을 든든히 지키는 중이다.

비록 광도규가 토미존 수술로 조기에 시즌을 마감했지만, 김도영을 제외한 타선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했다. 김도영 또한 곧 돌아올 예정이다.

"다편당 챔피언" KIA가 다시 한번 저력을 뽐내며 반등하길 바란다.

사설

지역 현안예산 국회 추경 심의서 반영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대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 즉 중앙부처와 수도권 중심 사업은 대거 포함된 반면 지역 현안들은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재원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과 기금자금 등 4조1000억원, 국제발행 8조1000억원 등을 마련해 충당키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들은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된다. 또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반드시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간추렸다면 '필수추경'이라는 이름까지 단 이번 추경안에는 광주와 전남이 요청한 핵심 예산 대부분이 축소 반영됐거나 아예 빠졌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관련 예산 670억원을 요청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됐다. 670억원은 AI 실증 벨리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 957억 중 올해 남은 2~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AI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이 대거 누락된 것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AI데이터센터가 지역을 넘어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지만 헛수고가 돼 버렸다.

전남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산단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여수산단 고용유지 지원금과 위기 지역 대응자금 50억원 정도만 포함됐을뿐 민생 예산 대부분은 누락됐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세부 구성과 총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예산의 추가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 반영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영업자 설 땅 없는데…대책은 있나

지역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겹디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와 안타깝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에는 14만7000명이었다고 하니 4개월사이 300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전남 자영업자도 지난해 11월 29만7000명에서 지난 3월 29만5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4개월새 광주·전남에서 5000명의 자영업자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이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의 경우에는 광주는 줄고 전남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 지역 지난해 11월 11만2000명이었던 1인 자영업자는 지난 1월 10만4000명으로 7000명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 추세다. 이는 막대한 대출 등으로 인건비라도 아껴보기 위해 나 홀로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들마저도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됐다는 얘기다. 반면 전남은 1인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1월 25만6000명에서 지난 달 25만8000명으로 오히려 2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종업원을 둔 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이 소비위축으로 매출 하락이 계속되자 대출·인건비 등을 아껴보기 위해 이제 종업원 없이 홀로 운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광주는 1인 자영업자도 장사하기 힘든 상태가 됐고 전남은 이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에서 1인 자영업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광주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광주 금남로·충장로 상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8.41%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2분기에는 16.09%를 기록했다고 한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24.03%에서 2024년 2분기 31.02%까지 올랐다 3분기 25.34%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마저도 지난해 2분기 중대형 상가 전구 공실률 평균이 13.79%인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정치·외교적 불확실성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역대급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국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